

## 보도해명자료

(‘14. 11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새정치 “MB정부 VIP 자원외교, 1조 4천억  
투자해 0원 회수...”(‘14.11.19, SBS, 노컷, 머니투데이 등)

### 1. 기사내용

□ MB 정부 시절 이른바 ‘VIP 자원외교’를 통해 체결한 MOU 45건에 1조 4천 46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회수액은 0원, 향후 2조 721억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되어 있음.

○ 45건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체결 28건, 이상득 전 의원 체결 11건, 한승수 전 국무총리 체결 4건 등

□ 45건 중 탐사개발 MOU는 총 35건인데 성과없이 종결된 것이 2건

○ 진행중인 6건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

- 호주 코카투사 사업은 현재까지 배당액 전무, 남아공 잔드콕스 희토류 광구는 현재까지도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

- 이라크 바지안 광구는 탐사실패로 반납, 상가우스우스 광구는 경제성 있는 유전 발견에 이르지 못한 채 내년 광권 만료를 앞둔 상황, 우즈베크 유전개발사업은 탐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 준비중, UAE 사업은 탐사조차 제대로 추진 못해...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#### 가. MOU 체결 등 VIP 자원외교

□ 고위급 자원외교는 2000년대 초 신고유가 시대 도래 및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, 참여정부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음

○ 중국, 일본 등 주요 자원 수입국들도 중동, 아프리카 등 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위급 자원외교\*를 전개함

\* 中-아랍 협력포럼(‘04.1월), 日 고이즈미 수상 실크로드 에너지 순방(‘02.4월) 등

○ 자원개발 후발주자인 한국도 적극적인 고위급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함

□ ‘03년 이래 해외자원개발 관련 석유공사, 가스공사, 광물공사가 체결한 MOU는 총 67건이며, 그 중에서 실제사업으로 연결된 MOU는 총 16건임

○ 동 MOU는 VIP, 특사, 총리 순방 ‘계기’에 체결된 것이며, 실제 체결 당사자는 석유공사(14건)·가스공사(5건)·광물공사(48건)임

□ MB정부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MOU는 총 45건이며, 사업관련 MOU는 30건, 체결된 MOU가 진전되어 실제사업으로 연결된 건은 7건임

○ MOU 관련 사업 7건중 6건은 진행중, 1건은 종료되었으며, 7건의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8.5억불임

○ 총 투자액 8.5억불중 종료 1건(확정손실 1.7백만불)과 이라크 사업 4개광구중 탐사에 실패한 2개 광구(손실 192백만불) 감안시 누적 손실은 약 1.94억불로 예상됨

\* 사업 관련 MOU 이외에는 포괄협력/기술·인력·정보 교류 MOU로 총 15건

□ MB정부 기간 MOU 관련 사업투자에서 회수액이 없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6건의 사업중 호주 코카투社 사업을 제외하고는 탐사·개발 단계에 있어 생산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

\* 호주 코카투사 사업은 생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, 탐사·생산사업에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회수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

○ 동 사업 중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라크 쿠르드 하울러 광구사업,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사업 등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0~30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됨

○ 6개 사업 관련 공사별 중장기재무계획에 따른 향후 '14~'18년 간 투자예정금액은 약 14억불이나, 동 계획은 시장상황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되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님

## 나. 구체 프로젝트 관련

□ 광물자원개발

○ (호주 코카투社 사업) 광물공사가 '06년 지분 7.42%로 참여한 동 사업은 현재 생산광구 인수, 추가 탐사\*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비가 필요하여 배당없이 유상증자만 실시하고 있음.

\* '06년 광물공사 참여 당시 4개 프로젝트 진행 → '14년 현재 17개 사업으로 확장

○ (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 사업) 광물공사는 현재 사전 사업 타당성평가를 진행 중이며('15.1분기 완료 목표),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.

○ (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사업) 1단계 탐사(시추 12공) 결과 희토류 층(평균 폭 2~4m)이 발견되었고, '15년 2단계 탐사 후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.

□ 석유·가스 개발

○ (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) 석유공사가 참여한 5개 사업 중 쿠르드 하울러 광구에서 2.8억배럴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발견에 성공하였으며, 상가우사우스 광구는 2차 시추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하여 매장량 평가 및 추가 시추 준비 중임.

- 글로벌 기업의 탐사성공률이 20~30%에 머무르는 등 탐사 사업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할 때, 이라크에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성공한 것은 40%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

c (우즈벡 서페르가나·취나바드 사업) 현재 탐사결과를 평가 중이며, 사업 지속 추진 여부 검토 중임.

○ (UAE 유전개발 사업) '14.4월 첫 번째 탐사광구에서 일산 1만 배럴 원유 산출시험에 성공하였으며, '17년부터 생산 예정임.

※ 관련문의 :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(044-203-5140)

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(044-203-5143). 끝.